

7700억 들여 고흥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미래산업 메카
떠오르는 전남

〈4〉우주산업의 중심

전남도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앞세워 국내 우주산업 메카로 도약에 나선다.

오는 2035년까지 사업비 7700억원을 투입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을 선진국 수준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집적단지)로 조성, 국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민간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우주발사체 관련 시설 집적화를 무기로 기업 유치에 나서는 한편 우주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을 대상지로 삼은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프로젝트다.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 7705억원으로 추산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및 시설 구축(3800억원), 발사체 시험 인증센터 구축 및 인증지원(1350억원),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820억원),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170억원), 우주과학교육테마파크 조성(1050억원), 과학로켓교육센터 및 인력 양성시설 구축(515억원) 등이다.

단기간 성과를 가져오기 힘든 사업임에도 전남도가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팽창

기업유치·테마 관광단지 개발

2024년 민간기업 발사대 구축

매년 4~5회 발사체 발사

사업비 확보·접근성 개선 과제

하는 우주산업 시장규모, 정부의 민간우주기업 육성 의지와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내놓은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1.7%p(60억 달러) 성장한 3660억 달러(약 434조원)였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2040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18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누리호 최종 연소시험에 참석해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왔다”며 “미국의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오는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우주기업 지원을

위한 발사대 구축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496억원을 투입해 나로우주센터에 소형 고체추진 발사대 건설에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4년 이후 우주발사체 발사가 매년 4~5회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연 10회 이상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육호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장은 “발사대와 함께 이송로, 부대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업용 발사체 발사대가 구축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민간우주기업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흥이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메카로 떠오를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기업 육성 의지, 우주발사체 인프라의 전남 집적화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우주관련기업 및 기관의 전남 유치가 거론된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주산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359개, 연구기관 34개, 대학 56개(119개 학과)로 총 449개로 이 가운데 호남권에는 단 14개(3.1%)가 분포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227개·50.6%)과 충청권(114개·25.4%)에 집중됐고 다음으로 영남권(85개·18.9%)이었다.

이와 함께 전남이 우주산업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7000억원을 웃도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또한 접근성 개선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연장 96.6km) 고속도로 건설



지난 9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전 최종 점검 단계인 ‘WDR(Wet Dress Rehearsal)’을 위해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용 기체를 이송해 발사대에 세우는 장면을 다중노출해 촬영한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현재 차로 2시간 걸리는 이동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일기 전남도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은 “2024년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대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서면 정부기관 예측대로 정부 및 민간 우주기업이 수시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게 된

다”며 “적기 예산 확보로 우주산업 관련시설이 집적화되고, 수시로 발사체가 발사돼 주목도가 높아지면 기업과 관광객이 늘고,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시내버스 종사자 급식 환경 개선 나서겠다”

업체 대표·운수종사자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내버스 업체대표·운수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내버스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는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마회중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버스업체 대표, 운수종사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민선7

기 들어 광주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희망했던 수준까지 높여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식단 개선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동결된 급식비 인상과 노후한 급식소 식사 공간 환경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마회중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버스운전자의 안전에 필요한 휴게공간 등의 확충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고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다”

며 “급식비를 인상하고 급식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내버스 불친절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침단공영차고지 급식소를 방문해 운수종사자와 오찬을 함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방역단을 격려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

20~21일...일자리 탐색관 운영

광주시는 “20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주최하고 16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이 협업하는 ‘2021년 광주시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한다.

박람회는 장애인일자리 유공자(기관) 시상,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한 대중화 강연 등 순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유공자(기관) 시상은 광주시장 표창 2개, 시교육감 표창 2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표창 2개 등 총 6개다.

박람회에서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진

로 설계를 위해 인공지능, 3D, AR/VR, 드론, e스포츠 등 다양한 직무체험과 대학 학과 체험 및 진학 상담, 교육청 내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장애인 구인을 희망하는 16개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정보 안내와 개별 면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력서 사진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사진 촬영·출력, 이력서 작성 서비스 등 구직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산 한우 우수성 입증

평가대회 3년 연속 대통령상

무안 박성운 농가 수상 영예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4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무안 박성운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남도는 대회 사상 최초 3년 연속 최고상 수상 농가를 배출해 전남산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 위상을 굳히고 있다.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주최한다. 지난 1993년부터 개최해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올해 평가대회는 전남 26농가를 포함해 전국 240농가가 참여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체외 및 외모심사, 도축, 최종평가 등이 치러졌다. 그 결과 무안에서 한우 234마리를 사육하는 박성운 농가의 출품 한우가 품질을 높게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선보인 한우는

출품 당시 체중 897kg, 도축 체중은 542kg으로,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7000만원에 낙찰됐다. 1kg당 2만3000원 수준인 일반 한우고기의 5.7배가 넘는 13만원에 달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전남에선 무안 순현균 농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곡성 임복래 농가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으뜸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전남 한우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남 한우산업이 전국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을 추진,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선발해 도내 한우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매년 개최하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그동안 5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해 전남 한우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24회 무안 박성운 농가를 포함해 15회 영암 서승민 농가, 19회 곡성 박희애 농가, 22회 고흥 박태화 농가, 23회 영암 김용복 농가가 상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남원시의회가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